



희망의 새해 자비의 등대 기축년 새해가 밝았다. 세계적인 경제한파로 유래없이 힘겨운때에 맞은 2009년 새아침. 저 찬란한 햇살에 인류의 희망을 담아본다. 그리고 부처님의 법이 해가 진 어두운 바다에서 한 생명도 길 잃고 방황하지 않도록 빛으로 이끌어 주는 등대가 되어주길 기원한다. 강릉 남매항에서 박재완 기자

## 행복을 원하는가? 일체를 공경하라

本紙 2009년 캠페인 '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' 전개  
공경 실천으로 '갈등의 격랑' 헤치는 빠른 길 찾아야

### 소설가 남지심의 새아침 제안

"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." 상불경보살이 한 말이다. 상불경보살을 이해하기 위해 <법화경>의 '상불경보살품' 일부를 읽어보자.

위음왕 부처님께서 멸도하시고 그 부처님의 정법도 멸한 뒤인 상법시대에 증상만(增上慢), 즉 깨달음을 얻지 못했으면서도 얻었다고 생각하며 아

만심에 빠진 비구들이 큰 세력을 지니고 있었다. 그 때 상불경이라고 하는 보살비구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상불경인 것은 그가 비구든 비구니든 우바이든 우바새든 자신의 눈에 띄기만 하면 그들을 향해 예배하고 찬탄하며 이렇게 말했다기 때문이다.

"나는 당신들을 존경합니다. 왜냐하면 당신들도 다 보살도를 닦아서 부처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."

상불경보살은 가르침을 읽거나 외우지 않고 항상 이렇게 예경만을 하였다. 그러자 사부대중 가운데 일부 부

리들은 상불경보살을 향해 화를 내며 욕을 하기도 하고, 심하면 몽둥이로 때리거나 돌이나 기왓장을 던지기도 했다. 그럴 때면 상불경보살은 멀리 도망을 가면서도 다시 큰 소리로 외쳤다.

"나는 당신들을 존경합니다. 왜냐하면 당신들은 다 보살도를 닦아서 부처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."

이렇게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예배하던 상불경보살이 마침내 열반에 들게 되었다. 그러자 허공에서 위음왕 부처님이 설하신 법화의 모든 게

송이 울려오면서 육근이 모두 청정해졌다. 그리고 이어 큰神通력을 얻게 되고 수 천 수 만 수 억의 중생들에게 법화의 가르침을 자유자재로 설할 수 있게 되었다.

석가모니 부처님은 특대세에게 상불경보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신 후 놀랍게도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.

"특대세야,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? 그때의 상불경보살이 어찌 다른 사람이었느냐? 내가 곧 그이다."

<3면에 계속>



2009년  
신년특집 48면 발행

### A 새아침 발원

기자들의 새해소망 4면  
'희망'으로보는 불교계 5면  
단체장 새해설계 7면  
종단지도자 신년법어 12-13면  
2009기대상품 15면

### 새아침 맞이 B

발원과기도 2-3면  
새아침에 만난 불자-강부자 5면  
새아침에 만난 선지식 12-13면  
새아침에 읽는 동화 15면  
종교편향없는 해 18면

새해 독자님 가정에 부처님 가피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.



최신맛은  
**금강선원 뽕잎차**  
현대 불교 신문 연재 | 초중소년의 뽕잎차 이야기

당뇨병, 고혈압, 혈액순환

주소권에 치세요  
뽕잎차

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말사 금강선원  
뽕잎차  
주 문 TEL 055) 931-9590

"술 함산화 권역 100%"  
**청기향**

덕유산 청다향 문의 055)941-1083

부처님 제일공양 한국최초 식품과학 연구분석(동국대) 51가지 향기판명



2009년 己丑年 모든 불자와 국민들의 평안을 기원합니다

## 수행과 전법으로 정진하는 조계종

### 종정 도림 법전

원로회의의장	종 산	총무원장	지 관
중앙종회의장	보 선	교육원장	청 화
호 계 원 장	법 등	포교원장	혜 총